

금리는 이틀째 밀어올랐고, 주가는 이번엔 멈춰 섰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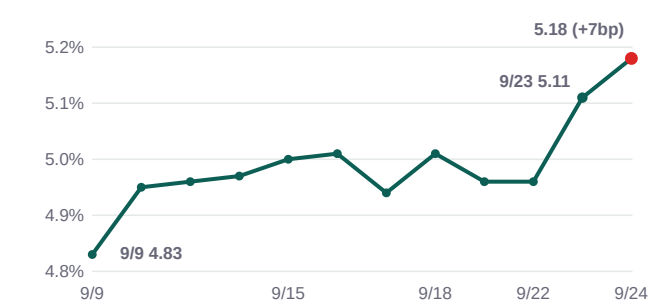
미 10년물 5.18%(+7bp) — 이틀 누적 +22bp, 곡선 전 구간이 이를 연속 올랐습니다. 그런데 어제 -1.13% 밀렸던 나스닥은 +0.01%, S&P는 -0.02% — 금리 쇼크 둘째 날의 주가는 제자리였습니다.

추석 휴장 이틀째(9/24~26 법정 연휴)라 오늘도 채점·예보 칸이 없는 호입니다. 연휴 중 열리는 미국 장 이틀(현지 9/24·25) 가운데 첫째 밤(9/24)을 기록하고, 84호가 못 가린 숫자 둘(미 9/23 S&P·SOX)을 닫습니다. 코스피 9/23 마감 뒤 쌓인 미국 밤은 이제 둘 — 9/28(월) 재개장은 오늘 밤(현지 9/25)까지 사흘치를 한꺼번에 소화합니다. 그리고 오늘 오후엔 SCFI가 나옵니다 — 예고 ③의 마지막 관문입니다.

① 미국 9/24 — 금리 이틀째 급등, 주가는 혼조 10년물 5.18% · 20년물 5.53%

9/24 (수)	종가	전일 대비
다우 · S&P 500 · 나스닥	51,349.98 · 7,704.13 (7,704.23 병존) · 26,939.37	-161.61p (-0.31%) · -1.90p (-0.02%) · +3.33p (+0.01%)
SOX · SOXX(ETF)	12,492.54 · \$566.07	-0.32% · +0.06%
재무부 2Y · 10Y · 20Y · 30Y	4.87 · 5.18 · 5.53 · 5.47	+2bp · +7bp · +8bp · +7bp
브렌트 · WTI (11월물)	\$106.60 · \$94.61	+3.41% · +2.7%

미 10년물 par 수익률 (9/9 → 9/24, 재무부 CSV)



FOMC 인상(9/17) 뒤 4.9%대로 내려왔던 10년물이 이틀 만에 4.96 → 5.11 → 5.18%. 2년물 +16bp·20년물 +20bp·30년물 +18bp — 이틀 동안 곡선 전 구간이 같은 방향입니다. 우리는 방향 전망 없이 꺾적만 적습니다.

세 지수 모두 우리 9/23 확정치에서 산술이 닫힙니다(이투데이·데일리안·CBC뉴스 교차). ⚠ S&P는 인베스팅이 7,704.23(-1.80p)으로 미세하게 갈려 마감 보도 두 곳 일치(7,704.13, -1.90p)를 채택·병기합니다(64호 규칙, 내일 체인 재확인). 재무부 일별 확정표(CSV 원문) 기준 10년물 5.18%는 우리 시계열의 최고 — 보도의 "2007년 이후 최고" "30년물 2004년 이후"는 시장 마감 호가 기준(10년물 5.163% · 30년물 5.46% — 재무부 par 확정표와 집계 방식이 다름)이라 라벨만 인용하고 숫자는 확정표로 적습니다. 30년물 5.47%는 바이백 기준선 5.3%를 17bp 위. 유가는 정산 보도 두 곳 교차(브렌트 \$106.60 +3.41% · WTI 11월물 \$94.61 +2.66~2.70%) 채택 — 인베스팅 일별표(106.76·94.76)는 병기. 재료 보도는 후티의 사우디 공격(상승)과 미·이란 "호르무즈 단계적 재개 협상"(반남) — 사흘 사이 같은 사안이 방향을 두 번 바꿔 값만 잇습니다. 달러인덱스 101.26(2개월 최고)·금 \$4,298(-0.5%, 한 곳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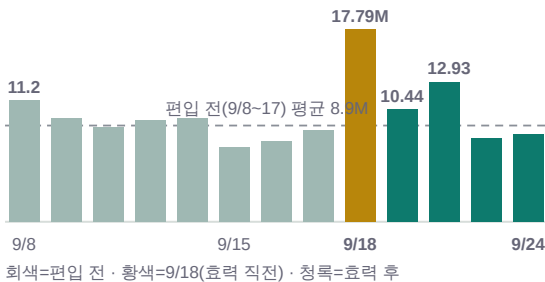
①-1 혼조의 결 — 지수는 멈췄는데 안에서는 크게 갈렸습니다. 나스닥을 3.33p 위에서 버티게 한 쪽은 메타 +4.50% · 알파벳 +1.34%, 끌어내린 쪽은 오라클 -3.47% · 볼륨에너지 -3.10%, 그리고 반도체 지수(SOX -0.32%, 이틀째 하락)였습니다 — ★정정판: 반도체 ETF SOXX 는 +0.06%(NYSE 반도체 지수 추종이라 SOX 와 갈릴 수 있어 둘을 나란히 적습니다). 마이크론만 실적 발표(9/30)를 앞두고 +0.78% 반등. FedWatch 10월 인상 확률은 약 70%(집계 69.7~71%)로 전날(70~71%)과 제자리 — 금리 급등 이틀째에 확률은 더 안 움직였습니다. 확률·금리 모두 시장이 적은 숫자이고, 우리 전망이 아닙니다.

② 84호가 못 가린 숫자 둘을 닫습니다 방법: 다음 날 값이 닫히는 체인

칸	84호 상태(병존)	확정
미 9/23 S&P 500	7,706.03 vs 7,706.39	7,706.03 — 9/24 -1.90p가 이 값에서만 닫힘(7,704.13)
SOX 9/23	12,438.27(-1.98%) vs 12,534.3(-1.23%)	약 12,532.76 — 나스닥 원표 9/24 12,492.54 + 40.22 역산 · 12,438.27 폐기

S&P는 77·83호 절차 그대로 "다음 날 보도 값이 어느 후보에서 닫히는가"로 갈랐습니다. ⚠ SOX 는 근거 정정 — 한 사이트 안의 "다음 날 등락률이 닫힌다"는 자기 전날 값으로 계산한 순환이라 근거가 못 돼 나스닥 원표 역산으로 바꾸고, 84호의 SOX 9/22 확정도 재확인 목록으로 돌립니다. 같은 방법의 연장으로 샌디스크 9/23 증가도 \$1,816.57(-3.73%)로 정정합니다(84호 게재 \$1,816.31~3.75% — 인베스팅 일별표 갱신본, 아래 ③). WTI 9/24 정산은 인베스팅(\$94.76)이 정산 보도 두 곳(\$94.61, 이투데이·뉴스핌 계열)과 갈렸는데 두 곳 일치 앞에서 단일 조화를 버리는 64호 규칙대로 \$94.61 채택, \$94.76은 병기합니다.

③ 샌디스크 — 지수 편입 전후 거래량, 사흘 만에 답합니다 84호 이월 · 인베스팅 일별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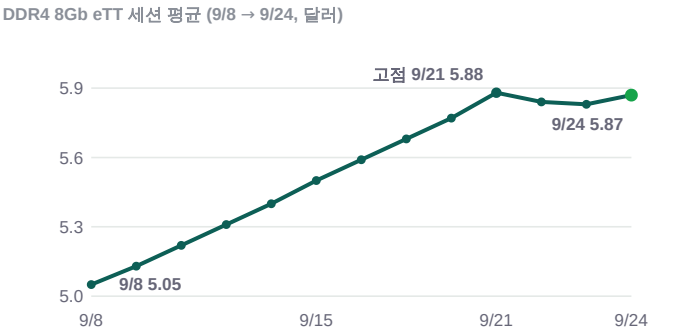
편입 전후 평균이 거의 같습니다 — 9거래일(9/8~18) 9.89M vs 효력 후 4거래일 9.79M. "지수 편입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다"고 볼 근거가 이 표본에는 없고, 없다는 것도 결과라 그대로 적습니다. 거래가 몰린 날은 효력일(9/21)이 아니라 직전 거래일 9/18(17.79M — 증가 +10.99% 급등일이자 미 선물·옵션 동시 만기일)이라 원인을 가르지 않습니다. 9/18을 빼면 편입 전 평균이 8.91M으로 내려가 효력 후가 10% 많아지므로 두 평균을 같이 적습니다 — 표본 4거래일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엔 짧습니다. 주가는 9/23 \$1,816.57(-3.73%) · 9/24 \$1,753.62(-3.47%)로 이틀 누적 -7.1% — "편입 때문"도 "AI 스토리지 때문"도 쓰지 않습니다. ⚠ 9/23 증가·거래량은 인베스팅 재조회(1,816.57·7.73M)가 84호 게재(1,816.31·7.17M)와 미세하게 갈려 재조회분으로 정정·병기합니다.

출처: 미 지수는 이투데이·데일리안·CBC뉴스 마감 보도 교차(전일 확정치 대비 산술 일치 · S&P는 인베스팅 값 병기) · 금리는 미 재무부 일일 par 수익률 CSV 원문(9/24 행 직접 수령) · SOX 는 나스닥 지수 원표 · SOXX 는 iShares·시세 보도 · 개별주는 인베스팅 일별표 · 유가는 이투데이·뉴스핌 계열 정산 보도 교차 + 인베스팅 일별표 병기(월물 표기) · FedWatch는 이투데이(약 71%)·쿠코인 플래시(69.7%) 병존 · 개별주 재료·달러인덱스·금은 이투데이 마감 기사 · 이 호는 같은 아침 두 세션의 초판(8972511)최종판 병합본 | 예측·목표가 없음 | 매수·매도 권유 아님 — 1/2쪽

④ DDR4, 이를 쉬고 하루 만에 되돌았습니다 9/24 세션 · 주간 표는 열흘째

DRAM 일종 (9/24 세션)	값	등락
DDR4 8Gb eTT	\$5.87	+0.69% — 이를 하락 뒤 반등
DDR5 16Gb 4800/5600 · 16Gb eTT	\$57.67 · \$25.50	+0.29% · +0.79% — 사흘째 상승
DDR4 16Gb eTT · 8Gb 3200	\$13.65 · \$46.11	+0.55% · +0.47%
DDR4 16Gb 3200 · DDR3 4Gb	\$83.78 · \$13.76	-0.70% · -0.09%

산술이 답합니다: $5.83 \times 1.0069 = 5.87$. 84호가 "8Gb-구형만 쉬는 갈림"이라 적은 다음 세션에 8Gb가 도로 올랐습니다 — 이를 하락(-0.68 → -0.17%)이 흐름 전환이 아니었다는 것까지만 적고, 하루 반등도 단정하지 않습니다(60초 규칙). 누적 +37.8%(8/25 \$4.26 대비), 고점은 9/21 \$5.88. 주간 다섯 표(모들·플래시·GDDR·LPDDR·웨이퍼)는 9/14 주치 그대로 열흘째(eMMC만 9/24 이동) — RDIMM 32GB \$2,050(+7.90%)의 다음 주치 대기가 길어집니다.



열아홉 세션 연속 상승 → 이를 하락 → 반등. 고점(5.88)과 오늘(5.87)의 거리는 1센트입니다. 일종 호가와 주간 계약 기준가는 같은 자로 비교하지 않습니다.

⑤ 보드 들이 돌아왔습니다 — DB가 살아난 게 아니라 DB 없이 들게 고친 결과 9/19 장애 후 엿새 만 · 9/25 07:13 조회

KRX 거래대금 급증 (9/22분 · 북구 후 첫 표)	거래대금	평시 대비	등락
동국생명과학 (바이오·제약) — 배수 1위	405억	392.8배	+29.98% 상한가
삼미금속(철강·금속) — 금액 1위	3,062억	19.7배	+21.76%
코리아써킷 (금액 2위) · 노타 · 토마토시스템	1,954억 · 527억 · 138억	18.7배 · 51.2배 · 30.9배	+25.43% · +29.97% · +30.00%

운임 보드(SCFI 9/18 3,687.83 반영 — 73호부터 이어진 "지면과 앱의 갈림" 해소)와 거래대금 보드가 엿새 만에 값을 냈습니다. 단 DB가 복구된 건 아닙니다 — 두 API 모두 cached:false(원천 직접)이고 같은 시각 가시 보드는 source:"live", 자료실은 "static"으로 전부 DB를 안 거치는 경로입니다. 9/24 배포분("DB 캐시 읽기 실패 = 캐시 없음으로 보고 원천에서")의 결과로 보이고, Neon 자체 상태는 이 지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거래대금은 9/22분 하나만 열렸고 9/17·18·21분과 연휴 직전 9/23분은 계속 공백(원천 T-1 순환 — 소금 여부 다음 호). 9/22분 상한가는 넷(동국생명과학·노타·더블유에스아이·토마토시스템). 삼미금속은 9/7(배수·금액 동시 1위) 이후 보름 만의 재등장 — 재료는 적지 않고 날짜만 있습니다.

⑥ 마이크론 실적 D-3 거래일 — 눈높이를 발표 전에 고정합니다. 회사 IR 보도자료(8/26, 글로벌뉴스와이어 게재) 원문으로 일정 확정: 9/30(수) 미 장 마감 후, 콘퍼런스콜 14:30 산악시간 = KST 10/1(목) 05:30 — IR 페이지가 스크립트로 채워져 세 번 실패했던 확인을 보도자료 원문으로 달고, 앱 캘린더 등록도 오늘 마쳤습니다. 발표 전 눈높이(우리 예측 아님): 영문 북수 집계 매출 약 \$506억(집계별 \$504~508억, 전년비 +345% 안팎) · EPS \$31.1~31.3, 여기에 회사가 6월에 낸 가이드스 매출 \$500억±\$10억·비GAAP EPS \$31.00±\$1.00을 병기합니다. 84호의 한국 보도 기준 \$509억·EPS \$32.2는 집계가 달라 이 값으로 교체하고, 골드만삭스 개별 전망(\$519억·\$32.54)은 컨센이 아니라 별도로 적습니다. 10/1 아침 호가 이 눈높이 그대로 채점합니다. 참고: 마이크론 9/24 +0.78% \$1,080.25.

⑦ 다음 확인 지점 오늘 오후 SCFI = 예고 ③ 마지막 관문

날짜	일정	보는 칸
오늘(금) 오후	SCFI 9/25 주간치	예고 ③ 종결 — 문안 고정: 3,687.83보다 낮으면 1승, 같거나 높으면 1패. 발행 시각(아침) 기준 미발표 — 86호(토)에서 채점. 외부 원문 두 곳 + 복구된 앱 보드로 매기고 판정 칸에 출처를 명기
월 9/28	국내 재개장 · 시초 예보 재개	미국 밤 사흘치(9/23 금리 쇼크·9/24 혼조·9/25 밤) 일괄 소화 — 갭 주의(8/31·9/14 월요일 유형) · 삼성전자 9/23 증가 계보(285,500/285,000) 네 숫자 교차 확정
수 9/30	마이크론 FY26 4Q (KST 10/1 새벽)	⑥의 고정 눈높이 대비 채점 · "상회#상승" 여덟째 표본 후보
목 10/1 · 금 10/2 · 목 10/8	관세청 9월 확정 · 미 9월 고용 · TSMC 월매출	61호 숙제(월말 열흘 가중) · 10/29 FOMC는 인상 확률 약 70%로 진입

공개 채점판 전적 5승 2패, 시초 예보 검증 방향 14승 2패·크기 28칸 중 19칸. 예고 ③(SCFI 9월 중 꺾임)는 9월 주치 셋이 전부 상승(3,590.05 → 3,662.18 → 3,687.83, 8주 연속 · 7/24 저점 3,062.95 대비 +20.4%)이라 불리한 상태로 마지막 관문에 갑니다. 다만 주간 증가폭은 +80.52 → +72.13 → +25.65로 줄었고, 25.65는 직전 값의 0.70%라 이번 주 0.7%만 못 올라도 판정이 뒤집힙니다 — 줄어든 것과 꺾인 것은 다르니 여기까지가 사실이고, 결과가 어느 쪽이든 그대로 적습니다. CCFI는 9/18 1,897.15(+1.9%, 4주 연속). 참고: 오늘 아침 야간 보드 두 값은 공식 +0.14% vs 퍼프 -3.07%로 3.21%p 차(어제 1.91%p)까지 벌어졌습니다 — 휴장 중 값이라 채점·판단에 쓰지 않고, 휴장일에도 값을 내는 야간 보드는 앱 점점 항목으로 유지합니다.

⑧ 이번 호가 확인하지 못한 것 정적 기록

① 엔비디아 9/24 증가 — 원표 두 벌(\$224.08 -0.56% 앱 집계 vs \$224.58 -0.41% 인베스팅)이 갈리고 9/23 계보(225.28/225.51)부터 벌어져 있어 지면에 신지 않고 재대조 ② 미 9/24 S&P 소수점 — 7,704.13(보도 두 곳) vs 7,704.23(인베스팅), 내일 체인으로 확정 ③ 삼성전자 9/23 증가 — 285,500 vs 285,000 병존 유지, 휴장이라 진전 없음(9/28 네 숫자 교차) ④ KRX 9/17·18·21·23분 — 보드 복구 후에도 9/22분만 개방 ⑤ FedWatch 9/24 마감 확률 — 69.7~71%로 좁히지 못함 ⑥ 주간 현물 표 9/21 주치 — 열흘째 미개방(정지 자체를 소재로 기록).